

중국의 석유소비 급증과 중동진출 동향

박복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머리말

최근 중국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에너지 소비 증가에 비해 공급 능력은 충분히 확충되지 않아 현재 국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전력 부족은 매우 심각하여 일부 연안지역에서는 제한송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에너지 부족난은 국내문제로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세는 상당 부분 중국의 석유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원유확보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갈등 및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의 에너지 문제, 특히 석유수급문제는 현재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1978년 이후 25년 동안 연평균 9.4%라는 고속성장을 달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中國統計摘要』(2004)에 따르면 중국의 에너지소비총량은 1978년 약 5.7억SCE(standard coal equivalent)에서 2003년에는 약 16.8억SCE로 2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4.4%에 해당하는데 이는 경제성장률보다 5%p 낮은 수준이므로 이 기간 동안 에너지 이용효율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특히 최근에 중국의 에너지 문제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2002년 이후 중국의 에너지 소비가 과거의 장기적 추세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에는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9.6%, 2003년에는 13.2%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과거 평균치의 약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현재 중국의 가장 시급한 에너지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력난을 해소하는 것이지만, 전력문제는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많은 발전소의 건설을 통해 향후 3년 이내에 안정화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석유 수급문제이다. 중국은 산유량으로 볼 때 세계 6위의 석유대국이지만 소비규모가 생산규모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여 1993년 이후 석유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석유수입량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석유의 안정적인 확보가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최근 이를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의 원유확보 노력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국영석유회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해외원유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 각지의 15개국 이상에서 25개 이상의 유전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

째는 주요 산유국과의 자원외교를 강화하는 것이다. 1990년대 말부터 장쩌민 국가주석은 카스피해 주변국가와 중동지역을 방문하며 자원외교를 강화하였고, 후진타오 국가주석도 2004년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여 석유, 가스 분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셋째는 산유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나 쌍무경제협정을 통해 원유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이란이나 카자흐스탄과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나, 최근 중동지역의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와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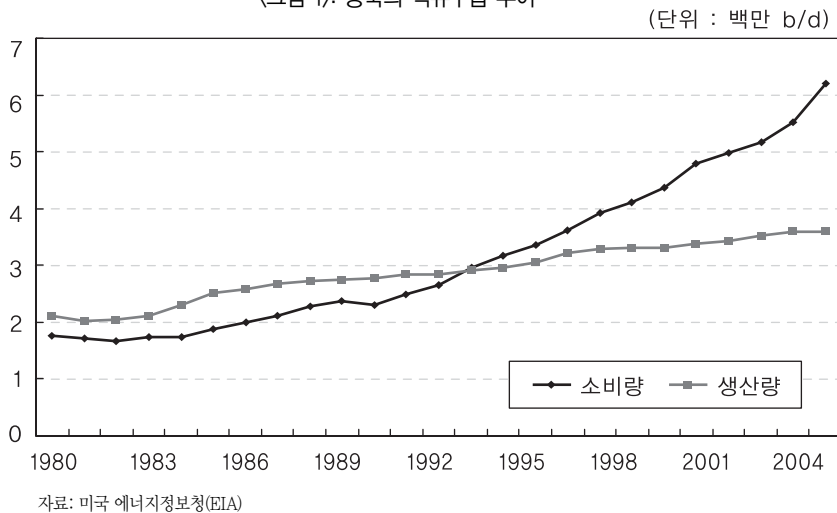
현재 세계 전체 석유생산량의 30%, 석유수출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은 중국의 향후 석유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중국은 석유수입의 약 45%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

는데 이 비율은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판단 하에 중국은 중동으로의 진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중국의 향후 석유 수요전망과 그로 인해 중동지역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석유확보의 관점에서 최근 중국의 중동 진출 동향을 정리할 것이다.

2. 중국의 석유수급 현황과 장기전망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1/4분기 현재 중국의 석유수요는 625만 b/d에 이르고 석유생산은 357만 b/d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석유의 순수입 규모는 268만 b/d 수준으로 석유자급률은 57% 내외가 된다.¹⁾ 1980년 이후 중국의 석유수급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1980년대에 중국의 석유소비비는 170

<그림 1>: 중국의 석유수급 추이



1)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1/4분기 중국의 수요량은 621만 b/d, 생산량은 343만 b/d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순수입량은 289만 b/d인데 그 중 원유가 229만 b/d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슈진단

만 b/d에서 230만 b/d로 증가하여 연평균 약 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1990년대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7.4%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 석유소비량이 480만 b/d까지 증가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중국이 본격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동부 연해지역이 급격히 공업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요는 이처럼 빠르게 증가한데 비해 중국의 석유공급량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였다. 생산량은 1980년에 210만 b/d에서 2000년에 340만 b/d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지난 20여년 동안 석유수요는 약 3.7배 증가한데 비해 석유생산은 1.7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중국은 1993년을 기점으로 석유순수출국에서 석유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사실 중국은 석유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확인매장량은 세계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약 237억 배럴(BP통계 기준)에 이른다. 석유생산량으로 보면 세계 6위로 이란과 비슷한 규모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석유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은 이미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의 석유소비대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석유수요가 생산능력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중국의 석유문제가 큰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2003년 이후 중국의 석유소비가 1990년대와 비교해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IA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중국의 소비증가율은 7.2%이지만 IEA의 추정에 따르면 11%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4년에는 이런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증가율이 12~1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세계 전체 석유소비증가량의 약 1/3이 중국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이 요인이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 중국의 석유수급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살펴보면, 지금 왜 중국 스스로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중국의 석유소비 급증을 주목하면서 그것이 국제석유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은 200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계 주요 기관들이 중국의 장기석유수요에 대해 전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기관들의 전망치가 상향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최근 중국의 석유소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2001년에 장기전망을 하면서 2010년에 중국의 석유 수요가 590만 b/d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중국의 석유소비는 올해 이미 이 수준을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CNOOC는 2020년이 되어서야 중국의 소비가 760만 b/d가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가장 최근의 2004년 EIA 전망치를 보면 이보다 무려 10년이나 앞선 2010년에 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EIA 스스로도 지난 2년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2002년 당시에는 2010년 수요를 680만 b/d로 전망했지만 2004년에는 무려 80만 b/d나 올려 760만 b/d로 발표했다.

가장 최근 전망치인 EIA(2004년)에 따르면 중국의 석유수요는 2020년까지 연간 4.6%씩 증가하여 현재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국의 이런 예상 연평균증가율은 세계 평균 예상증가율 1.9%의 2.5배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그리고 세계 전체 수요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6.8%에서 2010년에는 8.3%, 2020년에는 1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최근 전망치인 일본에너지경제연

〈표 1〉 주요기관의 중국석유수요 전망

(단위: 백만 b/d)

		연도				연평균 증가율(%)
		2010	2015	2020	2025	2000~2020년
CNOOC (2001)		5.9	6.7	7.6		2.7
IEA (2002)		7.0		9.4		3.8
KEEI (2002)		7.4		11.4		4.8
EIA (2002)		6.8	8.6	10.5		4.3
IEEJ (2004)		7.7		11.9		5.0
EIA (2004)	고성장	8.1	10.2	12.8	15.2	5.4
	기준성장	7.6 (8.3)*	9.2 (9.2)	11.0 (11.0)	12.8 (10.6)	4.6
	저성장	7.2	8.3	9.5	10.6	3.8

* ()는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CNOOC는 중국해양석유총공사, IEA는 OECD산하 국제에너지기구, KEEI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IEEJ는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EIA는 미국에너지정보청.

구소(IEEJ)의 전망은 중국 석유소비 증가율을 EIA보다도 더 높은 5.0%로 가정하고 있는데, 최근의 중국 석유소비 증가 추이를 보면 중국의 실제 석유소비 추이가 IEEJ의 전망에 더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3. 중국의 석유수입과 중동의 역할

중국은 앞으로 큰 정치적, 경제적 격변을 겪지 않는 한 적어도 앞으로 20여 년간은 산업화를 계속할 것이고 그에 따라 석유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석유생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국제 주요기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의 석유수입 역시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IA의

전망에 기초하여 중국의 석유 순수입량을 추정해보면 〈그림 2〉와 같다. 즉 중국의 석유수입은 2010년에는 400만 b/d, 2020년에는 750만 b/d에 이른다. 이는 현재의 1.5배와 2.7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금부터 약 20년 후인 2025년이 되면 중국의 석유순수입은 현재보다 무려 3.5배나 증가한 940만 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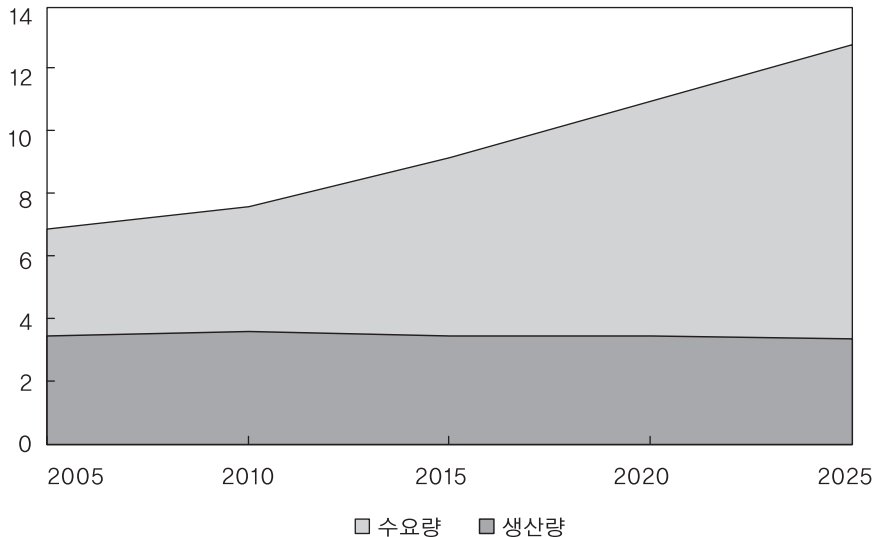
그러면 중국은 이러한 막대한 양의 석유를 어느 지역에서부터 수입할 것인가? 현재 중국은 원유의 약 50%를 중동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²⁾ 최대 수입대상국은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2003년 10월 현재 전체 원유수입량의 16.5%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되고 있다. 다음은 이란, 앙골라, 오만, 예멘 순이다. 중국

2) 석유제품까지 포함하면 중동의존도는 다소 떨어지는데, 석유제품의 경우 전체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한국, 싱가포르, 러시아, 일본의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이슈진단

〈그림 2〉: 중국의 장기 석유수급전망

(단위: 백만 b/d)



자료: EIA 장기전망을 기초로 작성

의 석유수입 대상국의 국별 비중을 한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보면, 이란, 앙골라, 오만 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쿠웨이트나 UAE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만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의 4번째 석유수입대상국이었던 반면 최근에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반면 2000년 최대석유수입 대상국이었던 오만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란과 예멘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중동에 대한 중국의 석유의존도는 지금도 높은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세계적인 석유매장량 분포를 보더라도 중동의 석유생산 비중은 증가할 것이 분명한 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

동간의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중동의존도는 상승할 것이다. EIA는 중국의 대중동 원유수입량이 2003년 약 100만 b/d에서 2025년에는 약 600만 b/d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석유수입에 있어 대중동의존도는 70%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³⁾

현재 중국에서는 에너지 소비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이라 석유의 비중이 24% 정도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특히 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석유의 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의 인구 1,000명 당 자동차 보유비율은 한국의 1/8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10~20년간 자동차 보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그 비율은 현재 5% 수준에서 2025년에는 약 1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2〉 중국의 국가별 원유 수입 추이

(단위: 천 b/d)

국 가	2000	2001	2002	2003 1월~10월	비중 (2003년, %)
사우디	114	175	227	300	16.5
이 란	139	216	212	254	14.0
앙골라	174	77	115	191	10.5
오 만	313	164	162	188	10.3
에 멘	72	46	45	133	7.3
수 단	n.a	n.a	139	133	7.3
러시아	29	35	59	94	5.2
베트남	63	67	71	72	4.0
콩 고	30	13	21	66	3.6
인도네시아	90	52	64	58	3.2
카자흐스탄	4	13	20	n.a	-
기 타	370	351	258	323	17.9
합 계	1,408	1,209	1,393	1,812	100
중동원유수입	754	679	689	925	
중동의존도(%)	53.5	56.2	49.5	51.0	

자료: World Oil Trade, PIW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데 2002년과 2003년 중국의 자동차 생산 증가율은 56%와 75%에 이르렀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중국에서는 철강, 비철 금속, 석유화학, 전자재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석유의 산업부문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결국 중국의 석유수요 및 수입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중동으로부터의 수입량과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동은 중국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중국은 석유가 경제성장의 핵심적 원천이기 때문에 석유확보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을 이미 확고하게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최근 대중동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교류확대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략적 판단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중국의 중동 석유확보 노력

석유확보를 위한 중국의 최근 중동 진출 동향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선 중국의 중동정책 전반의 변화과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동에 대한 중국의 정책방향은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거듭했는데, 특히 중국 국내의 정치적, 이념적 노선의 변화가 중동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中蘇관계나 中美관계도 중국의 중동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중동지역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력은 크게 퇴조함과 동시에 이 지역은 미국과 소련간 냉전의 각축장으로 변모되었다. 1950년대에 중국은 중동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다만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등 친미적 왕정에 대해서는 '반혁명분자, 봉건독재자'라고 비난하였다. 즉 소련

이슈진단

과의 보조를 유지하면서 이념에 기초한 중동정책을 유지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소간 대립이 심화되자 중동의 친미국가들은 물론이고 이집트와 같은 친소 국가들도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중국은 중동에서 미소패권에 대항해 제3세계의 지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려고 했지만 군사적, 경제적 원조 능력의 한계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1970년대 말 등소평의 등장과 더불어 중국의 중동정책도 실용주의적 외교노선으로 선회하였다. 등소평은 美蘇와의 관계를 불문하고 중동 국가와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란과의 관계가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1977~90년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 리비아, 요르단 등과의 수교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노선은 1990년대 이후의 탈냉전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의 석유외교가 본격화된 것은 199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초기에 미국과의 직접적 마찰과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석유도입 및 석유개발을 위한 외교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프리카의 수단 등에서 유전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중동지역에서 중국이 석유확보를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국가는 이란과 이라크였다. 이란 역시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에는 미국과 대립적인 관계로 전환된 반면 중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1997년 중국의 리펑칭 부수상은 이란을 방문하여 이란산 원유도입 확대를 합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CNPC)가 이라크의 알 아흐다브(Al Ahdab)유전 개발에 생산분할(PS)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하였다. 이 유전의 규모는 9만 b/d에 불과하지만 중국이 걸프지역의 석유상류부문에

에 처음으로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 후에도 중국은 이탈리아 기업과 공동으로 이라크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은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진출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1997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이미 석유상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사우디로부터의 석유수입을 3배 이상 증가시켰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코사는 엑슨과 더불어 중국 푸젠성(福建省)에 정유 및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999년 10월 장쩌민 주석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양국간 '전략적 석유파트너십' 관계를 천명하였다.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지난 10여 년간의 중동 진출 노력 결과 중동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유전개발 프로젝트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중국 기업이 현재 참가하고 있는 주요 유전개발 프로젝트는 <표 3>과 같다.

중국의 대중동 석유외교는 최근에 가속화되었는데, 특히 9.11사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9.11 당시 테러리스트의 상당수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소유자라는 점과,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사우디 왕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국제정치적 파트너가 필요해졌는데, UN 안보리상임이사국이면서 미래의 대규모 석유시장이 될 중국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중국은 향후 자국의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될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에너지 협력을 매개로 중동 국가와의 협력을 꾀하고 있다. 중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 아랍지역에서 반미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을 중

〈표 3〉 중국의 중동지역 내 주요 유전개발 프로젝트

국가명	프로젝트개요	참가기업	체결연도
이라크	Al-Ahdab 유전개발에 PS 방식 참여	CNPC	1997
이란	Zavareh-Kashan 광구의 채광 buy-back 계약	SINOPEC	2001
오만	Wadi Asad 유전광구 매수	CNPC	2002
	Mazoon Petragas 매수로 Mazoon-5 광구 취득	SINOPEC	2002
리비아	석유가스 광구의 채광권 취득	SINOPEC	2002
알제리	Zarzaitine 유전개발에 PS 방식 참여	SINOPEC	2002
사우디아라비아	Empty Quarter 가스개발 참여	SINOPEC	
시리아	Keibe 유전개발에 PS 방식 참여		2003

주: CNPC는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 SINOPEC은 중국석유화학총공사, CNOOC는 중국해양석유총공사를 지칭하는데, 세 회사는 1998년 국영기업개편 이후 상하류부문을 모두 가진 중국의 3대 석유메이저회사임.

자료: 郭 四志(2002), “中國における石油セキュリティ問題への關心の背景と對策の展開”,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를 이용하여 재작성

동지역 진출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의 나미미 석유장관이 다시 중국을 방문한 것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WTO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간 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이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란 역시 핵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현재 미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과 중국의 이해관계 역시 일치하는 면이 적지 않다. 이란 역시 극단적인 경우 이라크와 같이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석유관로를 위해서도 중국이 필요하다. 중국 역시 석유확보를 위해서, 아직도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방

기업의 진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이란을 중요한 석유분야 협력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국과 중동 국가간의 관계 강화 움직임은, 지난 7월 6일 중국이 중동 걸프지역의 경제통합기구인 걸프협력회의(GCC)와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주목을 끌게 되었다.⁴⁾ GCC 의장인 쿠웨이트 수상, GCC의 6개국 경제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원자바오 총리와 면담하고 양 지역간 경제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여기서 중국은 FTA 협상을 9월에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FTA를 가능한 한 조기에 체결할 것을 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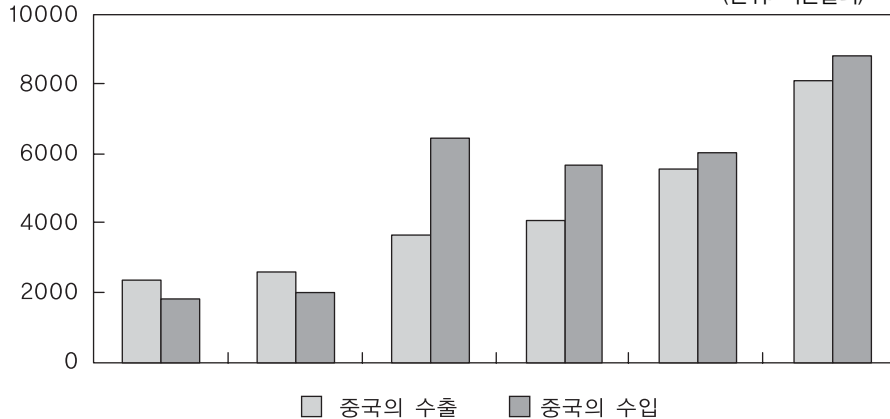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과 GCC간 교역량

4) GCC는 1981년에 창설된 페르시아 걸프 연안 6개국간 경제협력기구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오만, 카타르, 바레인인 회원국으로 있다. 6개국의 산유량은 약 1,500만b/d로 세계 전체의 18%, 중동 산유량의 65%를 차지한다.

이슈진단

〈그림 3〉 중국과 GCC 국가간 교역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무역협회 세계무역 데이터베이스(www.kita.net)

은 1998~2003년의 지난 5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중국의 대GCC 수출은 23억 달러에서 81억 달러로 약 3배 증가하였고, 수입은 18억 달러에서 88억 달러로 약 5배 증가하였다. 중국의 대GCC 수입품의 대부분은 원유나 석유화학제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중동산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 FTA 추진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GCC국가들은 중국이라는 거대 원유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정유를 비롯한 하류부문의 중국진출과 석유화학제품의 수출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5. 맺음말

석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은 석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0여 년 전부터 중동지역 진출을 노력해왔다. 초기에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미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출하였다. 대표적인 국가가 이란, 이라크, 리비아, 알제리, 수단 등이었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로의 진출이 어렵게 되고 국내 석유수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급증하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랍 지역 내에 반미정서가 확산되고 국제질서가 미국 중심의 단일체제로 재편되는 것을 중동 국가들이 경계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중동 진출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걸프 지역이 중동 중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도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다. 특히 GCC 국가들이 작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 부시 대통령이 중동지역과의 FTA를 제안했을 때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과의 FTA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걸프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선부르다. 이라크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은 주변 걸프지역 국가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GCC 사이에 FTA가 체결되면 양 지역간 경제 및 에너지 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중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점차 확대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GCC나 중국 모두 상호간의 관계강화가 미국과의 대립 양상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중동지역에서 중국과 미국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당분간 양 지역은 석유나 가스 등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에만 주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은 중동과의 협력을 정치군사부문까지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세계 최대의 무기 시장이기도 한 중동 지역에 중국이 핵기술이나 미사일 판매를 시도할 경우 이를 둘러싸고 미국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중동간의 관계 강화는 지금까지 중동산 원유의 최대 소비국이었던 일본이나 한국과의 관계에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중동 원유 수출 중 23%가 일본으로, 10%가 한국으로, 4%가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은 중동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지만, 앞으로 중국의 중동 석유 수요가 증가하면 상황은 변하게 될 것이다. 2025년이 되면 중동 원유 수출의 국별 비중이 일본 11%, 한국 5%, 중국 1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동에 대한 한국의 협상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중국의 중동 지역 유전개발 진출 노력이 세계적인 유전확보 경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는 안정적인 원유 확보를 위해 중동지역과의 에너지 협력 및 정치외교적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지역의 집단적 에너지 안보체계 확립 및 대중동

협상력 강화를 위해 한중일간 협력의 가능성 모색해야겠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